

조국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재외 한인들의 자서전·체험기 잇따라... 연변 조선족의 비판 눈길

외국에 사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동포들의 책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중국·유럽·미국 등 여러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펴낸 책 가운데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연변조선족의 '한국에 대한 발언'도 들어 있어 주목을 끈다.

타국일 수밖에 없는 조국

중국 연길시에 살고 있는 소설가 허련순과 김학철은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각각 소설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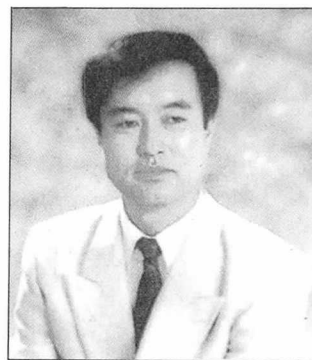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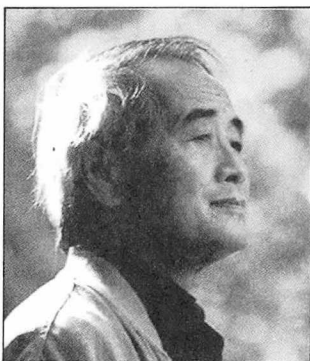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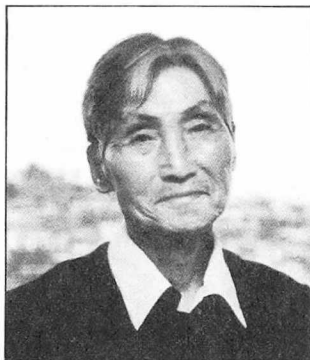
《20세기의 신화》를 쓴 소설가 김학철(80)은 일찍이 보성고보 재학중 중국 상해로 건너가 항일운동에 투신했고, 해방 후에는 북한 <로동신문>의 기자로 활약하다가 195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 책은 57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우파분자들이 겪었던 비참한 강제노동수용소 생활, 반혁명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사회의 냉대 속에 생활고를 감수하는 지식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나간다.

당시 6억5천만 중국인들의 대양이었던 모택동의 1인 독재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10년의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다. 중국내에서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원고를 타고한지 32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다.

김학철의 책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과거를 복원했다면, 제2회 흑룡강신문사 신춘문에 당선작인 허련순씨(43)의 《바람꽃》(범우사)은 연변 조선족들의 현재를 형상화했다. 할아버지의 땅 한국을 찾았지만 유산문제로 형제에게 의면당하는 홍지하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몸을 다치고 아내를 잃은 최인규의 힘든 삶이 내용. 한국을 조국이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수모를 겪어야 했던 연변동포의 아픔은 저자에게 친구와 이웃의 것이기에 더 애절하다. 저자는 "한국에 대한 불만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다.

《한국은 없다》(민예당) 역시 연변의 교포 3세인 김재국씨(38)가 한국에서 2년여 동안 보고 느낀 것을 쓴 것이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타국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겪은 여러가지 갈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부한다.

최근 재외한인들의 다양한 책이 나와 조용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타국일 수밖에 없는 조국을 바라보는 연변 조선족의 비판적 시각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의 다채로운 인생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왼쪽 위부터
김학철·허련순·
김재국·피터 현·
케이 송씨.

저자는 장춘사범대학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94년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감금상태로 매 맞아 가며 일하는 중국교포들, 헛점 투성이인 한국의 법, 나이트 클럽에서 목격한 상품화된 성 등 한국의 문화·정치 전반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인다.

"타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김재국씨는 좀더 깊이있는 문화비평서로 후속편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교포의 책은 토속적인 우리말이 읽는 맛을 더한다.

미국 국방성에서 일한 이용수씨의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살림)도 한국을 냉정한 어조로 분석한 책이다. 70·80년대의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미국방성 한국 담당으로 파견 근무한 이용수씨는 핵개발에 관련된 박정희 대통령의 대미 외교정책 등 한국의 정치비화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대국다운 면모를 살렸다. 자국에 불리한 강대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있게 '노(no)'라고 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통상외교 분야의 정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없다》나 《노(no)라고...》 같

은 책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터전의 장단점을 한국과 냉정하게 비교·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일본은 없다》《미국은 가짜다》 등의 책이 한시적인 외국 체험에 의해 대상국의 사회·문화 등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들과 비교할 만하다.

성공한 재외한인의 자서전도 눈길

한편 성공한 재외한인의 자서전적 이야기도 나와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외국의 관습과 가치관이 인생에 미친 영향을 책 속에 드러낸다.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남가주주립대학(UCLA)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남가주대학(USC)의 부부총장을 맡고 있는 케이 송씨(44)는 《네 속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죽여라》(예문)를 펴냈다. 소수민족에게 너그럽지 못한 외국사회에서 자리잡기까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본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환기시킨다.

그 가운데 결혼에 인생을 거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대표적. 한국 여성에게 씌워진 열녀문·현모양처의 올가미는 남성우월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긍정적이

고 진취적인 사고를 제안한다. 체험을 통해 터득한 자기개발법도 소개했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충고하고 격려하는 '멘토'와 배우고 따라갈 모델인물인 '로울 마들'을 만들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남다른 삶을 살아온 피터 현의 자서전 《세계를 구름처럼 떠도는 사나이》(푸른솔)도 눈길을 끈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피터 현씨(67)는 미국·프랑스·스페인 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여성과 사랑하고 정열적으로 일해 온 내용을 자서전에 담았다.

《월간 조선》에 연재했던 피터 현의 회고록은 좁은 나라 안에서 관습에 묶이고 지루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준다. 자서전에는 외국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수많은 여성편력이 담겨 있어 외국의 관습과 가치관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예문의 이주현 사장은 "아직 재외한인의 책은 출판물의 소재확대라는 의미가 강했다"며 외국 체험이 이색소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랐다. 《한국은 없다》를 펴낸 김재국씨는 이들 책이 한국·타국이라는 양면거울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과 타국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현주 기자